

눈과 마음으로 즐기는 제주 자연과 문화

탐라문화광장서 건입동 제11회 산지천축제 길트기 공연부터 영등굿까지 볼거리 풍성 제주어 골든벨·말하기경연 등 체험도 다채

건입동은 1955년 제주시에 편입돼 들어갔으며, 1962년 동제 실시에 따라 건입동이 됐다. 서쪽 산지천을 중심으로 이뤄진 마을이기 때문에 '산지'라 속칭되고 동쪽으로는 화북과 경계지점인 '고노모르'를 중심으로 여러 동네가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독립돼 법정동을 이루고 있는 드문 예에 속하며 20개동, 113개 반으로 나뉘어 있다.

건입동(동장 김미숙) 산지천축제위원회(위원장 고창근)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탐라문화광장(산지천일대)에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지천은 '산이 있는 땅에 샘이 솟아난다'하여 유래된 이름으로 과거엔 장아, 송어 등 다양한 물고기가 잡혀 이를 임금님께 진상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시민의 식수로 사용했으며 현재는 제주를 대표하는 생태하천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자연자원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2008년부터 개최해 온 산지천 축제는 올해 11번째 이어지고 있으며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11회 축제는 백로의 기운이 짙어진 9월 말에 시작한다.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를 흐르는 아름다운 산지천에서 전통과 문화가 융합된 다채로운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펼칠 계획이다.

축제 첫 날, 건입동민속보존회의 길트기 공연이 그 서막을 알린다. 민속보존회는 회원 21명으로 이루어진 건입동의 지역자생단체로 들불축제 및 탐라문화제 등 제주를 대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민속 문화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신명나는 길트기 공연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뒤 군악대, 주부합창단이 공연하고 가래떡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길이 47.4m인 가래떡 절단식 퍼포먼스는 산지천 총 길이가 474m임을 상징해 그 의미를 담았다. 뒤이어 흥겨운 음악에 맞춘 단체안무 플래시몹 축하공연이 개막식의 활기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축제 둘째 날인 21일에는 풍물, 난타, 양상블, 기공, 플루트 연주 무대가 열린다. 제주대학교대학부설초,



탐라문화광장(산지천 일원)에서 열린 제9회 산지천축제.

제주동초, 사회복지관 학생들이 풋풋한 열정으로 준비한 이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흥겨운 우리민요 한자락,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무용공연, 분위기를 한껏 올려줄 힘찬 춤바 댄스, 건입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라인댄스·난타 공연 등이 무대를 꽉 채워 축제 마지막 날 펼쳐질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 보려 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점차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제주어를 소재로 한 경연 및 공연을 다수 선보일 것이다. 부담 없이 제주어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제주 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퀴즈형식의 '제주어 골든벨' 경연과 연극형식의 '제주어 말하기' 경연이 열린다. 또한 건입만덕예술학교의 '하늘과 땅, 바다가 문득 더불어 사는 김만덕' 제주어 연극이 공연된다.

참가 신청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식행사의 마지막 무대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거행돼 축제말미를 장식한다. 화려한 조명에 반짝이며 산지천 물결 위를 수놓을 소망기원 곳 현장을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바란다. 고대르기자

“온정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고파”

서귀포 김문석·박승연 부부 지속적 봉사 실천으로 모범



박승연·김문석 부부.

(사)서귀포봄비청소년선도봉사자회 박승연 대표이사와 대신파출소 김문석 탐장 부부가 서귀포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모범이 되고 있다.

박승연 대표와 김문석 탐장은 부부지간으로 서귀포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파악해 매달 쌀 5~10포석을 전달하고 있다.

또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도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발굴해 생활지원금 및 장학금 전달, 상담 등 청소년 선도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에만 학교밖 청소년 등 58명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및 제주역사 바로알기 행사와 극단초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선도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추석명절을 앞뉘 서귀포시 지역 혼자사는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 어르신 5가정을 방문해 쌀 20kg 5포대를 전달하는 등 매달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는 선도사업과 거동이 불편해 힘들고 외롭게 사시는 홀몸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범죄예방 등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기자 lty9456@ihalla.com

“나눔으로 제주에 훈훈한 온기 더해요”

한라팔공회 김장김치 전달

한라팔공회(회장 부창근)의 이웃사랑 열기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더하고 있어 화제다.

한라팔공회는 지난 8일 한림체육관 야외에서 회원과 부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1100포기 김장담그기를 실시하고 한림읍 관내 기초생활수급가정과 독거노인가정 300여가구에 한림읍(읍장 홍경찬)을 통해 전달한 것을 비롯, 제주장애인요양원, 유진어린이집, 성자현 등 한라팔공회가 결연한 복지시설 등에 따뜻한 정이 듬뿍 담긴 550박스의 김치를 전달했다.

한라팔공회는 매년 읍면동 1개 지

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의 독거노인가정, 복지시설 등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는데 올해로 9회째를 이어가고 있다.

도내 16개 고등학교 동기생들로 구성된 '한라팔공회'는 추석맞이 이웃사랑 김치나눔 봉사활동과 함께 어려운 가구 집수리, LED등 교체, 자연환경지킴이 등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영리민간봉사단체(2016년 1월 등록 제336호)로 1980년 봉사를 통해 건강한 제주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 제주도내 16개 고등학교 입학 남학생 동기생들이 모여 2010년 9월에 창립했다. 현재 회원은 120명에 이른다.

고대르기자 bigroad@ihalla.com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운 추석됐으면...”

읍면동별 나눔 이어져 익명의 독지가도 여럿

서귀포시 지역 경기가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 읍면동별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나눔 실천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독지가들의 지속적인 나눔 행보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성산읍에는 지난 6일 익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수산물 400상자(16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성산읍 관계자는 “이 독지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산읍에 명절 선물을 기부했다”며



서귀포시 영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 사과, 배, 돼지고기, 계란 등 13종의 제수용품인 행복나눔상자를 관내 저소득 25가구에 전달했다. 사진=영천동 제공

“따뜻한 마음을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영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용국·최준호)는 지난 6일 관내 저소득 25가구를 방문해 과일,

축산물 등 총 13종의 제수용품을 담아 포장한 행복나눔상자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매월 주민들의 정기적인 기부로 마련한 행복나눔 캠페인 기금으로 이뤄졌다.

전 중앙동노인회장을 지난 현학삼씨와 오춘삼씨 부부는 최근 중앙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사리를 꺾어 마련한 이웃돕기 성금 60만원을 기탁했다. 2016년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봄철에 운동삼아 고사리를 꺾어 모은 돈인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대정읍에도 익명의 독지가가 추석선물 100세트(2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고철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힌 기부자는 2017년부터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선물세트를 대정읍사무소에 기탁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있다.

또 대천동지역자율방재단(회장 김영철)이 지난 5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나눔창구에 성금 50만원을, 대천동바르게살기위원회(회장 김철용)는 20만원을 각각 기탁하기도 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노형동장애인지원협의회 추석맞이 장학금 등 전달

노형동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김승하)는 지난 7일 노형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추석맞이 사랑나눔 이웃돕기 행사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실히 학

업을 수행하는 학생 4명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가정 등에 쌀(10kg) 32포 및 햄 선물세트 32세트를 각각 전달했다. 이 사업은 노형동장애인지원협의회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후원금으로 201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현재까지 16명에 68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고대르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